

## 캠퍼스주변 教育公害

李 商 燮

(延世大 英語英文學科)

### I

다음은 내가 제적하고 있는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인근 몇 대학에 대한 약간의 언급으로 국한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다른 대학의 사정은 잘 모르나, 신촌 지역이 혹시 한국 대학 캠퍼스 주변에 대하여 代表性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전국적인 것 또는 적어도 서울 지역에 대한 암시도 될 것이다.

얼마 전 신촌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웃 자리에 앉은 중년신사 두 분이 저 어렵고 어렵던 '50년대에 흔빠지게 마련했던 등록금으로 어실폰 학점 따느라고 애쓸 게 아니라 차타리 그 돈으로 당시 신촌 로타리 근처 호박밭 몇 평만 사놓았다라면 지금쯤 평평거리고 사는 갑부가 되었을 게 아니냐고 농담하며 웃었다. 수 십년 전에 같이 학교에 다니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다가 다시 만나 옛날 학창시절 얘기를 나누는 듯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50~'60년대에 대학 다닌 사람들이 옛날을 회고하면서 하도 자주 하는 것이라 이제는 농담 속에 끼지도 못한다. 나로 말하자면 국민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간강사에서 교수가 되기까지 이곳에서만 무려 50년 가까이 살았으니, 호박밭 변하여 밭

딩 숲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살아 왔다. 사실 대한민국 어디를 두고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는데, 하필 애꿎은 등록금으로 학교 돈 앞의 호박밭을 사 두지 못한 것을 한스런 일로 치부하는 이유는 단순한 우스개로만 넘겨 버리지 않아야 할 듯싶다.

우선 이 농담은 '50~'60년대의 大學教育에 대한 投資가 개인 각자에게 실질적 이득을 바라는 만큼 풀려 주었는가 하는 의문을 내포한다. 그때 대학에 가지 않고 또는 가지 못하고 장사, 특히 땅 장사를 하여 巨富가 된 사람이 아무개 아무개라는 '전설'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정말 있다 해도 그 당시에 30~40년 후의 미래를 영악하게 계산해 보고 나서 대학 등록금으로 땅을 사두었던 대학 자퇴자나 대학진학을 자진 포기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나— 거의 맹목적으로 우물타 소리 듣는 대학이라도 진학하려고 등록금도 꼬박꼬박 마련해 바쳤었다.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치고 대학 다닌 것을 진정으로 후회하는 사람은 없을 터이고, 다만 그들이 받은 대학교육의 현실적 이득에 비하여 다른 종류의 투자가 病的이라 할 만큼 엄청난 소득을 올려준 世態에 대한 간접적 비판일 것이다.

또한 그 농담은 대학 부근의 땅 값이 급격하

치솟은 사실을 꼬집고 있다. 땅 값이야 국내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랐지만, 유독 대학교문 앞의 땅 값이 높이 오른 이유는 '특수한 소비층'의 형성에 있다. 바로 이점에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전국 거의 어디서나 대학의 門前은 그야말로 成市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商圏이 형성되려면 거대한 소비자 집단이 있어야 한다. 대학 근처의 소비자 집단은 물론 대학생과 교직원일 것이다. 그런데 대학의 교직원은 거의 모두 가정 중심의 소비생활을 하는 사회인이므로, 일반 직장인들의 소비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점심 사먹는 정도이고, 그 숫자도 학생의 1/10 이내이다. 따라서 대학 부근 상권의 고객은 주로 젊은 대학생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2

대학생은 학생인 동안에는 소비자이지 생산자는 아니다. 아다 가장 순수한 소비자 집단일 것이다. 그것도 수천, 수만 명이 同質的 消費 형태를 보이는 특수한 집단이다. 따라서 대학 문전의 '성시'는 성격이 특수할 수밖에 없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학교 앞의 거리가 지금처럼 젊은 소비자들로 들끓지는 않았다. 내가 이곳 대학에 다닐 때에는 가운데에 하수도를 끼고 길 양편에 여염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초라한 구멍가게와 선술집이 둘 셋, 불고기집이 하나(아직도 영업 중이다), 책방 하나, 다방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에도 학생은 4천 여 명이나 되었는데, 점심마저 굶고 다니는 학생이 수두룩하던 당시에 학생의 소비력은 극히 제한되었었다. 세상 사람이 모두 알 만큼 특수 상권이 형성되어 있던 곳은 이대 정문 앞이었는데, '50년대에 그 거리는 여자 맞춤옷 가게가 줄지어 있었다. 당시 연대 앞은 이대 앞에 비할 나위없이 초라했다. 그만큼 소비력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연대 앞의 변모는 사실상 천천히 진행되다가 최근 3년 간에 급속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아마 어디서나 비슷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본래 단독

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일제 때부터 하숙업이 성했던 이 일대에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4,5층 짜리 건물들이 꼭 들어찬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인 것이다. 이런 건물들은 거의 예외없이 지하실에 다방이나 카페, 1층 음식점, 2~3층 다방·카페, 4~5층 하숙으로 되어 있다. 사이 사이에 옷 가게, 당구장들이 끼어 있다. 그밖에서 을시 당국의 정책으로 큰 길 한 토막을 이른바 '명물거리'라 하여 갈비집 등 본격적인 음식점들을 유치시켰는데, 이들은 학생보다는 일반인을 상대하는 업소들이다. 현재 대형 백화점도 건축중에 있다. 서점의 수는 줄었으나 대형화하여 두 곳이 있고 교내에도 대형 서점이 있으니, 서적 매장의 면적은 훨씬 넓어진 셈이다.

이처럼 이 지역이 젊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특수한 상가로 변모함에 따라 시내 각처에서 이곳을 일부러 찾아 오는 젊은이들이 이 지역 대학생 수와 맞먹을 정도라고 한다. 고객이 없으면 商圏은 형성될 수 없는데, 이곳의 고객은 연대생을 비롯한 인근 대학과 기타 젊은 학생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들은 이 상권을 급속도로 확장시킬 만한 消費力이 있다.

그들의 엄청난 소비력은 어디서 오는가? '91년도 한국인의 1인당 총 생산은 6천 달러라고 하니 우리 돈으로는 450만 원 가량이다. 대학생은 그중 250만 원 정도를 등록금 등 학생 신분 유지의 필요 경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백만 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중간 정도의 용돈에 해당되고 지방 학생에게는 거의 두 학기 동안의 하숙비가 된다. 이들은 따로 용돈을 마련해서 쓸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3년간 학교 앞 골목길 양편을 4,5층 복합건물로 꼭 채우게 한 것은 한국인 1인당 생산량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소비하는 大學生 집단이라는 말이 된다. 순수한 소비집단이 국가적 평균 생산량을 넘는 금액을 쓰고 있다는 말이다. 흔히 들기로는 많은 대학생들이 과외지도를 비롯한 각종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 안팎에 승용차를 대놓는 대학생 수가 날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 그들의 돈벌이는 불경기를 모를 만큼 썩 좋은 모양이다. 대학생의 부모들만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잡자기 두세 배씩 올려줄

만큼 호황을 누리는 것은 아니니, 대학생들의 급격한 소비력 신장은 분명 자신들의 경제 활동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외금지 조항의 폐지는 대학생의 승용차 소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일반인의 수입과 대학생의 수입은 그 양상이 무척 다르다. 일반 가계수입은 필요 경비 지출 이외에 상당한 분량이 저축된다. 자녀교육, 혼사, 건강, 주거 등에 관련된 지출은 당장의 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장기저축에 의존한다. 한국인의 저축률이 30% 가량 된다니 가구당 가용 예산은 많이 줄어든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종전에는 거의 학비와 하숙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용돈 마련을 위한 경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순수한 소비로 직결되는 추세가 짙어가는 것이다. 20세 안팎의 젊은 대학생이 그달 그달의 과외지도비로 받는 기십 만 원의 돈을 장차 결혼자금, 사업자금을 위해 계획적으로 저축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던 아주 쉽게 임시로 번 돈이니 젊은이답게 쉽게 소비해 버리는 것이다.

요즘의 대학생 중 집에서 점심을 싸오는 학생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모두들 교내 식당이나 학교 밖의 식당에서 사먹는다. 그런데 교내 식당이 협소한데다가 음식이 다양하지도, 질이 높지도 못하여 가까운 학교앞 식당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한다. 값은 교내보다 최소한 2~3배 더 하지만 대학생의 소비 수준도 그만큼 상승했다고 보겠다. 뿐만 아니라 요즘 대학생들은 오후 5~6시 학교의 정규수업이 끝나면 집 또는 하숙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메개는 학교 근처의 다방이나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 놀고 저녁도 먹고 헤어지며, 그중 상당수는 도서관이나 학생 연구실로 되돌아가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지방 학생들도 방학 직후나 명절 때에만 집에 내려가 있다가 다시 학교 근처의 하숙집에 머물면서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고 친구도 만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한다. 학교 안과 밖이 방학기간에도 붐빈다. 그래서 학교 앞은 年中無休로 성시를 이루는 것이 최근 뚜렷해진 현

상이다. 과거에는 방학 기간 동안 학교앞은 비교적 한산했는데, 이제 학생과 학교앞 상가는 한층 더 긴밀한 共生關係를 맺은 것이다.

### 3

이러한 형국을 대학교수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가장 상식적이고 또한 상투적이기도 한 견해는 그것을 教育環境 公害로 보는 것이다. 국민학교 교문 앞에서 몇 백 미터 안에는 어른 상대의 음식점, 다방, 술집 등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國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교육에 그러한 업소들이 해로운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 규정은 대학의 교문앞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생들에게는 그런 업소들이 公害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가?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 둔 것인가? 그런 업소들이 대학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대다수의 교수들은 대학교육을 국민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인가? 대학 문밖의 술집, 음식점, 다방, 옷 가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문학·법학·전자공학·신학 교육을 방해하는지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 없다. 교수들은 대체로 막연하고도 상투적으로 교문앞의 상가에 대하여 反感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와 있을 시간에 다방이나 당구장에 들어가 있는 대학생은 극히 드물다고 하니, 그런 업소들에 대한 교수의 반감은 '교객'을 빼앗긴다는 질투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학교 아동이건 대학생이건 가게나 업소에서 용돈을 쓴다는 사실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리라.

教育環境과 일상적인 商業環境은 서로 던져 떨어뜨려 놓을수록 교육적이라는 것이 동·서양 공통의 신념이다. 맹자의 어머니가 저자 거리에서 이사한 것은 어린 아들이 저자의 장사치 흉내를 내는 까닭이라고 했다. 장사치가 하는 소리와 것거리는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유교 문화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자들은 믿고 있다. 학교는 저자뿐 아니라 가정 생활 환경과도 격리되어야 한다고 믿어 학교는

등구밖, 시외, 시골 오지에 세워야 좋다는 생각이 아직껏 살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철저한 '격리의 담'이라도 높이 둘러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 관행은 우리나라에서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근대교육을 먼저 시작한 서양의 경우, 모든 주요 교육기관은 일상 생활과는 아주 동떨어진 곳에 건물을 짓고 학생과 교수가 모두 들어와 같이 살면서 공부하게 했었다. 속세를 떠난 수도원과 비슷했다. 지금도 미국의 많은 대학은 학생 수보다 훨씬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중벽한 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사실은 허허벌판에 대학을 세웠던 것인데, 나중에 그 대학에 이모저모로 끌어들고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 작은 마을이나마 형성하게 된 것이 상례이다. 연세대도 설립 당시에는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신촌의 슬밭 속에 나무를 찍어내 지었고, 교수촌과 기숙사도 완벽하진 않아도 마련되어 있었다.

#### 4

이러한 건 세계적 관행은 日常生活이 교육의 阻害要素가 된다고 보는 철학을 배경으로 한다고 보겠다. 철저한 격리를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학교는 교도소, 병영, 병원이나 진배없다. 일상 생활이 벌어지는 속세는 특수 목적을 가진 집단에게는 公衆인 격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시절이었어도 우리 국민학교 근처에는 학용품 가게와 나란히 눈깔사탕 가게와 만화가게가 반드시 생기곤 하였으니 학생의 소비 심향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맹자 어머니의 어린 아들도 장사치 흥내뿐 아니라 과자가게를 기웃거렸기 쉽다. 맹모가 어떤 학교에 어린 맹자를 보냈는지 모르나, 필경 그 학교 근처에는 코흘리개들의 엽전을 겨냥한 장사치가 모여들었을 것이다. 교도소 근처에도 특수한 가게가 생기듯 세상 어떤 학교 주변에도 학생 소비자를 위한 상행위가 벌어지게 마련이다. 오히려 학교가 생기므로써 큰 상권이 형성되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연대·이대 앞 상권이 그 대표적 예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수 천, 수 만의 학생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학교 자체가 다 공급할 수 없는

까닭에 학생 상대의 '저자'는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에 대한 공급을 敎育公衆로만 보아야 하는가? 오늘날 매우 강력한 교육철학에 의하면 교육이란 일상적 삶의 자연스런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데, 유독 교문 앞 저자 거리와는 격리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그 철학과 모순되는 것 같다.

나는 여러 나라의 대학을 두루 잘 알지는 못하나, 몇 대학에는 상당 기간 체류한 경험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드높은 명성을 누리는 하버드대학은 도시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본래는 강 건너 마을 등구 밖에서 세워졌던 것인데 마을이 커져서 그리 된 것이다), 그 중심가인 하버드스퀘어는 음식점, 책방, 옷 가게 등 점포가 여럿 있긴 하지만 한국의 전형적인 대학앞과는 비교가 안 되게 한산하다. 명문이라는 미국 비지니아 대학 정문 앞의 거리는 불과 50미터 남짓한 길이밖에 안 될 것이다. 대학 도시 옥스포드의 상가도 어느 지방 도시보다 특별히 유난스럽지 않다. 학생 상대의 상권이 형성된 것은 사실일 터이나, 우리나라처럼 유별나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도심지 대학은 분명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하버드, 비지니아, 옥스포드 대학생들에 비하여 학교 문밖에서의 소비 활동을 벌여야 하는 특수한 민족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 대학들의 構造的 不調和로 말미암은 것이리라.

앞서 말했듯이 서양의 대학들은 본래 학생과 교수들이 일반 사회와 격리되어 공동 생활을 하던 기구(그것을 콜레기움, 즉 칼리지라 했던 것이다)였으므로,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작은 사회를 이루었다. 바로 그러한 전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오늘날에도 학생들이 共同生活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대학은 강의실, 도서관, 교무 행정 사무실과 함께 반드시 기숙사와 식당을 갖추어야 하고, 책과 학용품 이외에 일상용품까지 공급하는 상점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본래 대학은 상류층의 자제가 기거하는 시설이었으므로 모든 시설과 공급품은 상류층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했는데, 이 전통 역시 상당 수준까지는 지

켜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서양 대학의 웬만한 기숙사, 식당, 서점, 일용품점, 휴게실 등은 못해도 종류 가정의 수준은 된다. 학교 식당의 음식이 싸고도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영화, 음악, 미술, 체육 시설들은 교문 밖에서는 오히려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정 안에서 학생생활의 필요를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생활을 엄격히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하게끔 조처하는 것이다.

## 5

우리나라 대학은 딱딱한 나무 걸상을 꼭 채워 넣은 강의실 몇 개로 시작되고, 그런 강의실과 비슷한 도서관, 강당, 식당 등은 그나마도 나중에야 첨가된다. 하긴 아직도 도서관과 강당이 없는 대학도 허다하다. 기숙사라는 것은 '생활'을 추방하는 한국 대학에서 절대 필수시설로 인정되지 못한다. 빈약한 장서를 엄격히 보관하는 것이 주 임무인 도서관은 되도록이면 책을 많이 빌려 가도록 권장하는 곳이 아니라, 제 책 가지고 와서 보는 독서실 구실로 만족하는 기관이다. 추위와 더위가 극심한 한국의 기후 조건에서 날 시멘트 바닥의 교실은 제 아무리 명교수 명강의라도 그 효과를 반감시킨 수밖에 없다. 만 명, 2만 명의 '학생떼'가 그런 교실과 독서실이라도 일단 나오면 갈 데가 없다. '50~'60년대에 우골담 소리를 감수하면서 지은 대학 건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후에 지은 건물들도 스파르타식 검약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건물들이다. 그런 시설 속에 수만 명의 생기발랄한 젊은이들을 가두어 두기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막대한 教育公害가 된다고 보겠다. 그것은 교육이란 이름의 새디즘일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요즘 대학생들은 번두리 자취집에서 기거한다 해도 머릿말의 자리끼가 얼어붙는 냉방에서 자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며, 으레 점심은 굶는 극빈자들도 아니고, 더욱이 장래의 계획같은 것으로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돈이 주머니에 들어 있는 젊은이들이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지방 학생들이 기거하는 학교 근처 하숙집들이 최근 고층화되면서 시설도 썩 좋아졌는데, 하숙생들의 휴게실은 자연히 바로 아래층의 다방이나 카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숙마저 근대화했는데 학교 시설은 '50년대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런 시설물 속에 그런 젊은이들이 참고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확실히 학생들에게도 강의실 밖에서의 생활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은 그 필요를 극히 미미하게만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우리 教育環境의 구조적 不調和이다. 학교앞 상가의 구성 양상을 학생 쪽에서 보던, 거의 다 학생들의 자연스런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 이름 높던 이대앞의 맞춤옷 가게들은 지금은 거의 다 값싼 기성복 가게들로 바뀌고, 간이음식점과 휴게실, 데다위 하숙집들이 들어섰다. 학교앞에서 하루 밤만 자는 사람도 줄어들었는데 전보다 여관 수도 줄었고, 한때 빈창하던 전자오락실도 더 늘지 않든가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 전에 없던 소극장은 여럿 생겼다.

학교 앞의 형형색색 자극적인 광고판과 기발한 유희가 퇴폐와 향락의 인상을 준다던, 서울 이태원이나 강남 지역에서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진짜 퇴폐·사치·향락의 현장과 경험적으로 비교해 볼 일이다.

학교앞 상가가 전혀 없는 곳, 예컨대 국립 서울대학교는 젊은 학생들의 자연스런 삶의 필요를 캠퍼스 안에서 다 충족시키는지, 또는 오직 克己에 호소해서 필요를 말살하는 데 성공했는지, 또는 우수 두뇌집단인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묻고 싶다. 나 개인적으로는 수만 명 젊은이들의 직접적 필요를 감당해 내는 '문전성서'가 그런대로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느낀다. 오히려 학교 자체가 그 일을 감당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한 것이고, 그런 만큼 教育公害인 것이다. ▣